

생명의 뿌리 인삼을 세계로, 미래로

권오룡 |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장




한 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가 삼계탕이다. 토종닭에 찹쌀, 인삼, 대추 등을 넣어 푹 끓여낸 삼계탕은 기운이 쇠하고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에 자주 찾게 되는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이다. 그런데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있지 않다면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방의 감초’라는 말처럼 삼계탕에 인삼이 빠진다면 그저 그런 탕밖에 되지 않는다. 인삼은 피로회복과 고혈압, 빈혈, 당뇨에 좋다. 여름철의 식욕감퇴와 구토, 설사에 효과가 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무더위로 인해 생기는 짜증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인삼은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건강음식이다. ‘건강’ 하면 ‘인삼’을 떠올리듯, 인삼을 소재로 한 지구촌 최고의 건강이벤트가 금년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충남 금산에서 열린다. 바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다.

조물주가 인간에게 내려준 신비의 명약인 인삼, 특히 고려인삼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인삼은 1500년 전 고대 중국의 문헌에 회자되면서 당시 사라센제국 등 중동지방까지 교역되었다. 그리고 이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조차 알아주는 건강식품이 되었다.

특히, 국내 수삼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시장이 있는 충남 금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며, 인삼·약초의 집산지이다. 또한 전국 3대 약령시장 중 하나이다. 생산을 비롯해 가공, 유통 등 인삼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현재 금산군민 대부분이 인삼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30년 전통의 금산인삼축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치러낸 금산인삼엑스포는 금산 고려인삼의 위상 제고와 인삼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삼의 생산량 증가와 주산지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인삼 가격의 하락과 인삼시장의 개방에 따른 중국인삼의 저가 공세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그리고 불안정한 시



장가적으로 상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 도에서는 고려인삼의 과학적 효능을 부각시키고, 인삼 소비시장 확대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에 이어 올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고려인삼의 탁월한 효능에 대한 과학 학술적 기반 구축의 당위성 등에 힘입어 인삼재배 농가와 생산 및 유통업계의 건전한 육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와 금산군이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인삼엑스포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연고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135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게 된다.

금년 행사는 인삼을 국가 수출 주도품목으로 육성하고 고려인삼의 명성과 인삼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2006년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신감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국내 인삼산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산업박람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치러낼 계획이다.

인삼엑스포의 주 행사장은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공간으로 기존 시설과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려인삼의 국제교역 장터를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바탕을 둔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전시 체험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전시시설은 인삼산업관의 면적을 확장해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체의 인삼 제품을 전시하여 국제 교역 확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획 설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세계 주요생산국에서 생산된 각종 인삼제품을 전시 및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삼의 맛과 향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다채로운 공연이벤트를 연출하여 세계인과 함께 즐기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오감만족과 감동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추진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본인은 조직위 전 가족과 충남도, 금산군민을 비롯한 200만 충남도민과 함께 금년 가을에 개최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하여 고려인삼의 성지인 금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금산에서 싹을 틔운 생명의 뿌리가 세계와 미래로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